주요 내용

▌미 연기금의 국내 투자 전망▐

현황

- 미국의 연기금들 약 3,600개가 가입한 초대형 투자자 단체인 'Pensions 2000'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미국의 연기금들이 對韓 투자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임

투자 전망

- 한국경제의 구조조정, 시장개방, 제도개혁 및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
-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미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, 투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,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, 그리고 부동산 등임
- 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(CalPERS)은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Asian Recovery Fund를 구성함

파급 효과

- **(금융시장)** 증권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의 형성, 뮤츄얼펀드, 수익증권 등 간접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임
- **(기업)** 구조조정의 가속화 및 주주 중심의 경영 추세가 확산될 것임
- **(금융 제도)** 관리 감독 및 금융 투자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임

현안 분석

미 연기금의 국내 투자 전망

김 희 성 *hiskim@hri.co.kr* ☎ *724-4020*

현황

- **미 연기금[1]들이 서울 연차 총회를 계기로 국내 투자를 확대할 움직임이 있음**
  - 미국 연기금 협회인 'Pensions 2000'은 92년 설립되어 약 3,600개의 미국 연기금이 가입한 초대형 투자자 단체로서 전 세계에서 8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음
  - 이번 서울 총회에서 40개 미국계 연기금 투자자와 20여 개가 넘는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였으며, 기존의 한국 투자를 확대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음[2]
  - 전 세계의 연기금 가운데, 총 자산이 많은 기금들은 미국의 켈리포니아공무원연금, 네덜란드의 스티칭연기금ABP, 일본의 지방공무원협회기금 등임

< 미국 주요 연기금의 규모와 자산 보유 형태 >

	총자산 (U$ mil)	미국주식 (%)	해외주식 (채권포함) (%)	채권 (%)	현금 (%)	부동산 및 기타 (%)
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	133,525	45.3%	16.4%	25.2%	4.1%	7.7%
캘리포니아 교원연금	82,625	40.0%	22.1%	31.7%	0.9%	5.3%
뉴욕시 퇴직연금	55,160	57.3%	10.7%	31.4%	0.6%	-
뉴욕주 교원연금	71,077	62.6%	10.9%	17.5	0.7%	8.3%
아이다호 공무원 퇴직연금	5,210	53.3%	14.9%	30.8%	0.1%	0.9%

자료: Investor Home Corporation, 1999. 2. 17.

1) 미국의 연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으며, 그 규모는 96년에 5조 달러를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OECD회원국 가운데 연기금 비중이 가장 은 국가는 영국으로서 연기금 비중이 GDP의 75%를 차지하고 있음.

2) 이미 미국의 초대형 연기금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약 13억 달러 정도 늘리기로 정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됨(연합통신, 4월 13일 보도)

국내 투자 전망

- **(투자 배경) 그 동안의 구조조정, 시장 개방 및 제도 개선 및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음**
  -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 및 개혁 의지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파악, 한국 경제에 대한 투명도와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이 점차 높아짐
  - 선물거래소 개설, 국내 자본시장 개방, 외환거래 자유화 및 각종 제도의 개선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시 기존의 불편 사항들이 해소됨
  - 그 동안 다수의 펀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[3)]

- **(투자 전망) 어느 정도 국내시장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포트폴리오 재분배(Rebalancing)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**
  - 최근 국제 투자은행들이나 각종 중장기 펀드들이 유럽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이고, 아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추세임
  - 이는 여전히 투자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 유동성이 높기 때문임
  - 현재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성과가 좋고, 국채시장 및 국채 선물시장 등 신규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, 미국 연기금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

- **(투자 대상) 미 연기금들은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음**
  - 일차적으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,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
  - 미국의 교원연금들은 여타 연기금에 비해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편임

---

3) 예를 들어, 99년 4월 1일 현재 역외펀드의 1년 수익률을 보면, Dresdner Thornto Korea(52.53%), Fidelity Funds Korea(49.61%), GT Korean Growth A(42.64%), Tem Korean(47.82%), Templeton GS Korean(47.82%) 등으로 거의 수익률 평균이 48%를 있음

· 세계에서 가장 자산 규모가 큰 美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(CalPERS)[4]은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Asian Recovery Fund를 구성,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아시아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할 예정으로 알려짐[5]

· 뉴욕주 교원연금도 보유자산의 약 0.3%를 신흥 시장(emerging markets)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파급 효과

- **(금융시장) 미국의 연기금 투자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, 증권·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형성되고, 간접투자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**

· 8~10조 달러에 이르는 연기금 펀드가운데 0.1%만이라도 국내에 진출한다면, 약 80억~100억 달러(1$=1,200원 기준시 약 9조 6천억~ 12조 원)에 이르는 신규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, 본격적인 대세 상승 장세를 주도할 것임

· 미 연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형성될 것임

· 한국 시장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전 세계에 홍보되는 효과도 상당할 것임

·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, 간접 투자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임

·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자조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

- **(기업) 구조조정의 가속화 및 주주중심의 경영 추세가 확산될 것임**

·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등 외자유치가 활발해 지면서 기업의 구조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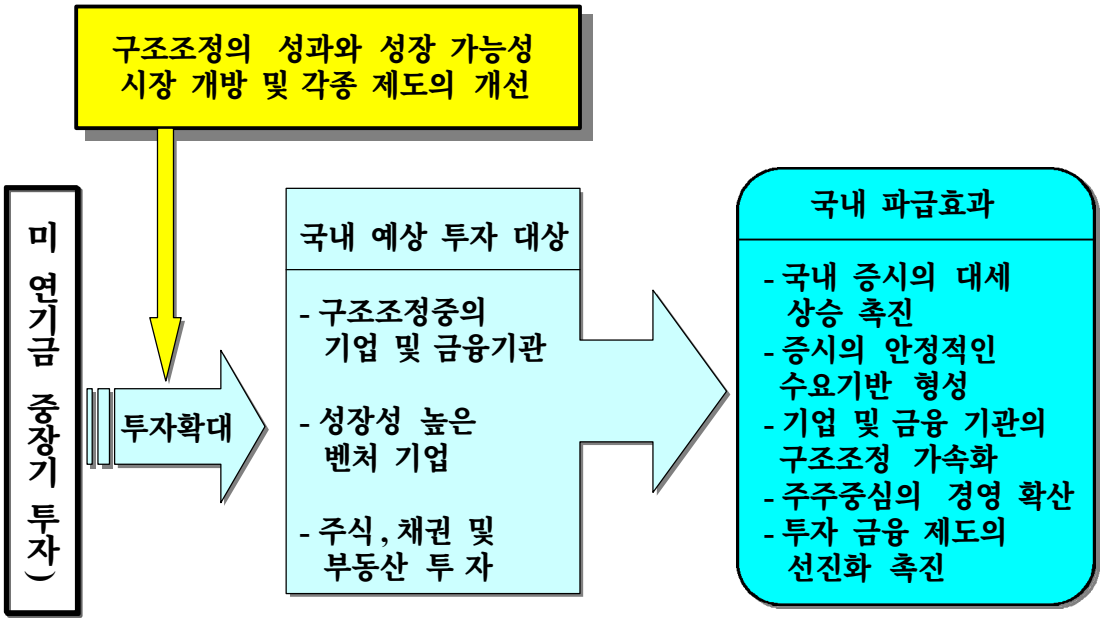
---

4) The California Public Employee's Retirement System(CalPERS)는 99년 3월 19일 5,000만 달러에 달하는 신규 Private Equity Fund 4개를 설립하였음. 1억 달러는 유국, 아시아의 벤처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, 1억 5천만 달러는 특수상황 및 기회주의형 드로, 기타 1억달러 규모의 2개 펀드는 각각 저평가된 미국 기업 및 벤처 투자펀드로 성되어 있음

5) 이 펀드는 미국의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, 파산에 직면한 아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(CalPERS 99년 3월 일 공식발표). 향후에 약 3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

정이 가속화될 것임

- 국내의 우량자산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거 외국계 펀드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음
- 외국계펀드들의 지분이 증가되어 서구에서 보편화된 주주 중심의 경영이 국내 기업에도 보편화될 것임
- 따라서 현재의 경영진에 대해 연기금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

- **(금융 제도) 관리 감독 및 금융 투자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임**
  - 금융 관련 관행 및 각종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임
  - 예를 들어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·금융 개혁이나, 선진국 수준의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특히, 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

< 미 연기금의 국내 투자 전망 및 파급 효과 >